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 성 중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회개·감사·축복이 함께 한 천국잔치

심령부흥회 폐회, 교회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결심

우리교회가 근본문제를 해결키 위한 심령부흥회가 4일간 진행되어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새벽·저녁 시간으로 베풀어진 천국잔치에는 회개와 감사와 그리고 축복이 어우러지는 짜릿한 분위기의 은혜의 시간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쳤다.

본당을 가득 메운 첫날 개회예배는 담임목사 신성중 목사 사회로 진행, 찬송 193장을 힘차게 부른 뒤 윤용규 목사의 기도, 성경 요한복음 3장 1~16절 봉독 후 아멘 찬양대의 찬양, 강사 이만신 목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부흥회 설교에서 이목사는 교회 갱신 운동 차원, 그리고 교회성장운동 차원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회개·축복·은혜를 받고, 1등 신자가 되어 영적 발전 제한 중을 허물어 버리고,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적극적인 신앙훈련을 받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튿날 새벽기도회(29일)에서는 성경 에베소서 5장 15~18절에 근거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설교했으며 저녁예배



시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26절을 인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일 성수, 부모 공경, 십일조 헌금 등을 재확인시켰고 3일째 새벽기도회에서는 야고보서 1장 2~15절을 봉독 "모든 시험을 이기자"란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저녁 예배는 마태복음 16장 13~20절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했으며, 마지막날 새벽기도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13절 봉독 후 "사랑이 제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저녁예배는 로마서 12장 1~2절 봉독한 후 "몸바쳐 충성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서원의 감사예물 에 대하여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사 이만신 목사는 설교시 늘 강조어법을 사용하여 좋은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보편성, 축복의 개념, 교회의 질서,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임을 특별하게 강조했다.

특히 교회가 시련이 오게된 근본 이유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

을 의면한 자기과시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과정이 노출되는 원인이 남이 아닌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므로 사죄의 은총을 받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설 것을 부탁했다.

이제 부흥회를 통하여 얻은 은혜를 간직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진실된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새롭게 펼쳐졌다.

"충현성극경연대회" 오늘 공연

"충현 성도여 / 충현성극경연대회에 시선을 모읍시다." 이것은 충현성극경연대회(준비위원장 박승준 장로)가 마련한 이색표어이다.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성극경연대회는 자칫 외면하기 쉽고 참가부서 정도만이 관심을 갖게 마련인 현실에 대한 주체적의 강도 높은 호소이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충현의 성도들이 무대를 통한 선교의 현장을 관람하며, 간접 복음화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늘은 각 교구 모임을 오후 3시에 마치고 갈릴리홀에서 성극경연을 참관토록 결정하고 제직들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9개 부서 10개팀의 참가 공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부문> 《성극경연대회 공연 안내》

부 서 명	제 목	연 출 자
영아부	나 사 로	임 원 예
유치부	실 로 압	김 은 희
초등 3부	뮤직 미션	이 정 립
초등 5부	아프리카의 하나님	이 연 순
초등 6부	악마의 축제	김 동 욱

<학생 부문>

부 서 명	제 목	연 출 자
중등 1부	죽으면 죽으리라	송 명 현
중등 2부(A)	천국 열쇠	오 용 민
중등 2부(B)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그대 아입니다	이 종 훈

<성인 부문>

부 서 명	제 목	연 출 자
대학부	사람의 아들	조 형 호
청년 I 부	빛의 때가	이 태 길

《공 연 일 정》

- ◎ 일 시 : 11월 2일(토) 오후 3시 아동부문
3일(주일) 오후 3시 학생 및 성인 부문
- ◎ 장 소 : 갈릴리홀

충현 프리즘

①...당회는 그 동안 사용해 왔던 '소식관'을 '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각 교구의 '다락방'도 '구역'으로 바뀌 사용토록 했다.

②...교육관 앞에 세워졌던 '소식비'는 당회 결의에 의하여 철거되었으며, 교회 내외에 있는 필요없는 조적물들도 철거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③...현금창구가 다시 열리게 되어 11월 첫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게 된다.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은 본당 3층 현금 수납대로 가면 개인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④...매월 실시되었던 학습, 세례 문답 및 성례식은 10월 중에는 중지하고,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⑤...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인 11월 셋째주일(17일)에 저지게 되며, 이날 감사예배와 유치부 어린이들의 감사축하행사가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⑥...금요 십야기도회(오후 9시~11시)는 각 교구별로 드려던 것을 전교인(전교구별)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으며, 십야기도회 인도는 신성중 담임목사가 권히 담당하고 있다.

⑦...충현찬양합창제가 은혜롭게 끝났다. 본 교회에 속한 성가대들이 충 출중한 이번 행사는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발전적 진보를 보았고, 찬양을 통한

찬제사의 표본이 되기도 했다.

⑧...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단풍도 곱게 물들었으며, 조물주의 창조의 선미를 체험하는 절실의 계절이다.

아 가을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9가지 열매를 주령주령 맺게 될 기원하며, 형제들과 서로 연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응집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충현강단



신성중 목사

미국 하버드대학의 갈브레드 교수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은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확신은 배움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확신이 옵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네 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울신학의 면류관, 기독교 신학의 완벽한 개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완전히 공부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줄거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서신은 그 당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서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편지를 두 편씩이나 썼는데 그런 교회에는 특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로 문제가 생겨 편지를 썼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고 "그리스도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살전 4장). 이는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무기를 가지고 온다는지 무섭게 하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적이 아무런 예고없이 갑자기 오듯이 그리스도도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니 잠은 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그제 아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세속의 잠을 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속의 잠을 자지 않을 때는 종말의 징조(마 25)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옥중서신을 비롯한 13편 내지 14편의 바울서신은 그 당시의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씌어졌습니다.

1. 기록자

바울은 편지의 기록자와 수신자를 명기한 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투의 인사말을 적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과 문안에 관한 내용 순으로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엡 1:1)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자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회나 교회나 총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목사,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란 목사나 장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란 전권대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 수신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엡 1:1). 그래서 에베소서를 흔히 순회서신이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동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신실한 자들이며, 신실한 자들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일제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았지만 신실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불신자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리스도인은 '거짓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불신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신자들은 불신 사회 속에서 비록 그들이 기독교리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적어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엡 1:2)

각 나라의 인사를 연구해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심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은혜"(카리스)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헬라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인기있던 전리품은 금은보석이나 노예였는데, 이것들을 제외한 전리품은 마구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인사말로 많이 썼습니다. 즉 은혜란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히브리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말로 "평강, 평안,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속에 갇혀 살았고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 없는 평화를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히브라식 인사입니다.

우리들은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엡 1:3)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 때론

지 않은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우리들이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 5)

택한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들을 죽음의 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신 근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흠이란 희생제물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동물에 흠이 있으면 안되었습니다.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흠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주신 것입니다. 흠이 많은 일부분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찬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취미 중 하나는 찬양입니다. 감사하므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일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며 생활 속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금년 4월 18일 오후 5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제일교회(박용삼 목사 시무)가 성전을 잘 지어 헌당하면서 이만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하던 중 마지막날, 이 목사님을 모시고 반찬을 베푸는 장소에 나는 아내와 특별히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어 귀한 자리에 동석할 수 있었다.

이만신 목사님께서 “충현교회, 참 훌륭한 교회지 /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지 / 김창인 목사님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 귀한 어른이시며 굉장히 큰 그릇이시.”라고 하시면서 좋은 집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가면서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지극히 칭송을 아끼시지 아니하셨다. 그러고는 또 “그 훌륭한 목사님께서 우리 중앙성결교회 강대상에 서서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가셨는데 나에게도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야 할 터인데 아직 한번도 주시지를 아니하시더군요 /” 하고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마주 앉아 있었으므로 “목사님, 제가 뵈기에 힘이 쭉뿔 넘치시는 듯하시고, 많이 젊어보이시는데 아직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속히 한번 충현교회 강대상에 서서서 은혜를 몇 갑절로 갚으시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하고 나는 인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주일 “이만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심령 부흥회를 열게 되었다.”고 광고를 하시는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참으로 뜻밖의 일로구나 / 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도 안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

• 독자의 난 •

“뜻밖의 일(錯覺), 뜻 안의 일(攝理)”



이요섭 집사(제7교구·초등6부 교사)

의 하나님이시로구나 / 하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드디어 부흥회는 예정대로 10월 28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31일 저녁까지 모두 7차례의 집회가 너무나 은혜롭게, 그러므로 아쉽게 끝이 났다. 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일어난 뜻밖의 축복받은 성회에 몇 가지 뜻밖의 일을 얘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기도에 힘을 줄은 몰랐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시험에 들었는데 개인의 심령에는 오히려 기도가 중단되어 버렸고 밤낮이 없을 만큼 입안이 짝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 하였는데 오히려 기도가 뜨거워진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교구별로 좌석을 정하여 동원하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정말 많이 동참하였고 어떤 분은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셔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나는 난생 처음 그런 사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목사님들께서 각기 받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시는 모습에서 교우들은 “새장에서 풀려나온 새처럼 보였다.”는 뜻밖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참 훌륭한 분들만 모시었다.”고 하면서 전에 바라보지 아니하던 상당한 기대를 더 크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로님들께서 많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가 넘쳤다.

충현의 모든 성도가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강사 목사님께서도 “충현교회는 과연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만하다.”라고도 말씀하신 것같이 밑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절서 유지에 자진 협조하는 교우들의 실천 운동을 통하여 이번엔 더욱 성숙된 절서 의식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뜻밖의 일이었다.”고 봉사원의 기뻐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와서 맨 앞자리로부터 바깥바깥 절서 있게 앉으시는 모습은 파동적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숭선 수범하셨다고 할 수 있다.

완전한 심일조를 하기 위하여 저금통을 구입하는 집사님 한 분을 부딪히게 되어 감동을 크게 받았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심일조는 내 것이 아니라”면서 깨끗하게 헌금하시던 분이 “장사를 하다보면 풍돈을 주머니에 집어 넣고 써버리고 난 뒤에 자신의 편한 계산 방법으로 정산하여 바쳤었는데 앞으로는 주머니에 넣기 전에 하나님의

것은 때어서 심일조에 저금하여 정한 날짜에 개봉하여 헌금하기로 했다.”는 결심에 따라 실천에 옮기는 그 집사님, “지금까지도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그분은 마음으로 이미 받아 간직하고 감사하는 미소면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나를 밝게 비추어주는 것을 쓰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었으나 지난날의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충무로 충현교회 시절, 새 성전 건축 허가 신청한 것이 10여년 동안 결정되지 아니하여서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가 있었고,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예배당을 못짓게 방해하며 고소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메스컴에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비방하고 모략하기도 하였다. 제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한 마음되어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는 충현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삼동 새 성전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큰 복을 받은 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는 데 나태하여져서 기어코

경고의 것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충현교회 담임목사로 신성종 목사님을 새롭게 세워주셨고 신성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참 성도의 생활을 하자. “회개치 아니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한다 (요일 1:8~10)”고 하신 말씀에 귀기울여 실천하자. 내 기분과 이익에 따라 살지 말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진리를 위한 생활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가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셨다. 하늘가는 길을 열어주는 전도의 길을 신자가 막을 수 없다. 더욱 힘써 계속적으로 전도하자. 진리를 위해 사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마음의 평안을 칭찬과 상급을, 물질의 축복과 아울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자.

청년3부 10일 초청잔치 열기로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1시 교육관 514호에서 초청잔치를 개최한다.

청년3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예배에만 참석하는 28세 이상의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편집자주 : 지난호 장로칼럼 중 서동식 장로의 글이 앞뒤가 바뀌어져 편집자로서 사과를 드리며 독자들에게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장로칼럼

하나님의 승리



송 환 창 장로(국제교구장)

참으로 악한 세상이다. 세상은 온통 악으로 꽂차 있어서 선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 저쪽에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폭력, 살인, 방화, 강도, 온갖 범죄가 판을 친다. 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행이나 자선을 빙자하여 그 뒤에서 행하여지는 위선이나 범죄는 또 어떠한가? 한동안 메스컴을 떠들석하게 하였던 씨커스 소녀 주희 양의 참혹한 학대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어리디 어린 11세의 소녀를 살이 찢면 쪽예를 익힐 수가 없고 또 정상발육을 하면 구경거리가 되지 못하여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참도 안재우고 식사도 겨우 새 막이만큼을 하루에 두 번밖에 주지 않으면서 몽둥이와 채찍으로 동물이거나 다름없이 사육해 왔다는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간교하고 치밀하여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 위장하고 있었다.

매와 굶주림으로 쇠달란 소녀가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하여 두 멘백이나 경찰에 호소함으로써 조사가 행하여졌건만 뽀뽀해 자기 천팔로 입적되어 있는 호적 서류를 내보이면서 슬금슬쩍 넘어갔다고 하니 믿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보다. 파기는 파면 뒤에 숨어 씨커스단장으로 또 사회명사로 행세하면서 호화주택과 승용차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악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았고 선을 비웃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응징은 내리고 말았다.

세상의 인간사는 모두 “하나님과 악마”라고 하는 성경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싸움은 선과 악, 의와 죄,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과 악마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그림자가 이 세상에 비쳐지는 것이다. 개인의 싸움, 사회의 분쟁, 국가간의 전쟁은 모두 그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악마는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니와 그 사악과 간교와 꾀술은 도저히 인간과 형식과 겉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장은 악마가 승리하는 듯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사탄을 철저하게 파멸시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주신다.

교회의 역사는 악마의 계략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오랜 기록이다. 마침 10월 31일은 종교개혁 474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마틴 루터의 교회 개혁은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또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충현교회가 비록 먹구름이 덮이고 어두움에 가렸었던 한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파멸에 이루어졌다. 시련은 가고 교회가 사라진 자리에는 화평이 찾아오고 기쁨이 흘러 넘치며 사랑으로 화가 되었다. 니 주님의 약속은 정녕 성취되었다.

우리는 그날이 오면 충현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자. 할렐루야!

지교회 설립을 위하여 10개월 간 전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추진해 왔던 지교회가 설립되었다. 지난 2월, 1개월 동안 전도위원회 농어촌담당 강협 장로님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보며 무교회지역을 답사한 결과 경남 밀양과, 경북 봉화에 고감리, 학산리, 그리고 전남 보성과 전북 영광 지방 등 4곳 지역을 적격지로 정하게 되었다.

4개 지역 지교회에서 사역할 교역자를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교역자가 나타나지 않아 교계 각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좋은 교역자를 청빙케 되었다.

전도위원회는 세 분 교역자의 이력서를 받고 지난 8월 면접을 하니 모두 적합한 사역자들이 선임되었다. 밀양과 대신과 고감리로 각각 3분을 답사케 하니 이것이 바로 고양충현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김후용 강도사도 현지로 내려가서 답사를 하게 하고 결심을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는 관리국장 오진국 장로, 전도위원장

우기전 장로, 김여순 집사, 박상준 집사 등 4분이 현지답사 후 적격지로 결정하여 고감리에 빈집 한 가옥을 세로 빌리고 수리하여 김후용 강도사께서 우거할 수 있는 거처에서 임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김후용 강도사가 노총각이므로 면접을 할 때 “총각 혼자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느냐?”고 질문했더니 김 강도사가

신부의 아버님은 좋게 승락을 했으나, 어머니께서 목회자의 사모가 너무 힘들고 고생한다며 반대하므로 신부될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자기는 좋다고 허락을 했다.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고 지난 10월 5일 신부가 출석하는 교회(아버지가 목회하는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충현교회 부목사 윤용규 목사의 주례로 혼인에식할

드리고 윤용규 목사와 전도위원회 임원들을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총각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목회 일선에서 사역을 다짐하고 설립 예배의 순서를 준비했다.

지난 10월 24일, 전도위원회에서 오르간 1대와 에스더전도회 연합회에서 기념 타올을 준비하고, 에스더전도회는 각 지회 회장 권사들과 전도회 위원과 지도

맞아주었다.

시간이 없으므로 곧바로 설립 예배를 드리니 강도사 장인 되시는 목사께서도 안양에서 봉고차로 여섯 분의 성도들과 같이 오시고 이웃 교회에서까지 교회 설립을 축하하러 오셔서 감사헌금까지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다. 예배를 시작하니 모인 수가 59명이었다.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으며, 부족한 제가 사회를 보고 강협 장로의 간절한 기도와 에스더전도회 회장단 권사님들의 특송과 가져간 오르간으로 반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송태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고양충현교회가 설립예배를 시점으로 하여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설립예배에 참석하였던 우리 충현교회 일행 15명은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11시간의 장거리를 차 안에서 피곤도 모르고 오후 9시 경에 야 서울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고 계속 고양충현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였다. 주님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 집집마다 도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을 도우면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였다. 모든 대원들이 양쪽 손에 주민들의 손을 잡고 성전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낮에 전도길에서 만났던 얼굴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으면 다시 가서 모시고 오는 모습이 정말 강권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꼭 어울릴 것 같은 바로 그것이었다. 게다가 김양흠 목사

◎ 지교회 설립 현장 ◎

노총각 교역자 장가들고
설립예배
하나님 영광 위해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김 경 칠 장로(전도위 전도부장)



나?”고 질문했더니 김 강도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9월 중으로 좋은 짝을 주실 겁니다.”하며 좋은 신부감을 증배하라는 부탁도 곁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로전도사 이두란 전도사께 부탁을 드렸더니 전도사께서 평소 잘 아시는 목사 따님을 소개했다. 그러나

것을 작정하였다. 예식은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치루어졌다.

예식이 끝나니 김후용 강도사 진직들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었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보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김후용 강도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목사 송태근 목사와 함께 설립예배를 드리러 현지로 출발했다. 당일 오전 8시 30분 교회를 출발하여 5시간 30분의 장시간이 걸리는 경북 봉화 고감리에 도착하였다. 오후 2시 5분이 되어 차에서 하차하니 부락의 유치 여러 분들과 이장, 학교 선생, 학생들까지 우리 일행을 반갑게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쳐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된 데 이어, 27일에는 특등자 선발이 있었는데, 유치부 안재우 어린이, 초등2부 이기혁 학생, 초등4부 한보람 학생, 장년4부 김재명 장로가 특등을, 장년1부 새신자 이복순 성도가 특별 장려상을 차지하였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게 되며 이기혁, 한보람 학생은 수요일, 안재우 어린이, 김재명 장로는 10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전교인 앞에서 암송을 할 예정이다.

총 307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근거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홍콩충현교회 입당예배 드려

지난 4월 설립예배를 드린 홍콩충현교회(담당목사 김은태 선교사)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27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한편 입당 일주일 전부터 김학진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열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결단하고 홍콩의 복음화를 통한 중국, 북한의 선교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부흥회 때 드린 헌금은 중국과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키로 하여 더욱 은혜가 넘쳐기도 하였다.

고등부 학과
선택 특강 실시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송태근 목사)는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을 적성에 맞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칼릴리움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현재 교사로 있는 구제안 전도와 김교종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학과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실시할 예정인데, 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각 가정마다 피서 계획으로 분주한 달이 기도 하다. 우리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에는 마음 중심에서 들려 오는 소리가 있었다. “나 너 위하여 피흘렸건만 너 나 위하여 땀흘리지 못하느냐?” 그 소리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기농어촌전도회 송식을 마친 우리 대원들은 모일 때마다 과송받을 강원도 인제군 서리 마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였다. 계획성있는 프로그램을 주도하신 김양흠 목사님을 선두로 하여 대장 김영달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 여섯 분의 집사님과 세 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7월 29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했다.

침침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들과 그 사이로 띄엄띄엄 보이는 인가들에 섞여 드디어 교회 종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환영 나온 배정양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의 안내로 일단 교회에 짐을 내려놓고 도착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4시 40분이었다. 배 목사님으로부터 동네 현황을 전해들은 후에 우리들은 전도 전략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열 땅을 네 개조로 나누어 준비한 타올과 선물을 가지고 “와 보라”는 전도 작전에 돌입하여 부흥회 시간 전까지 빠르고 급한 발걸음으로 한 집, 한 집 방문하였다. 교회당을 가득 채운 주민들은 씩스레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들이 태반이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들

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고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둘째날은 새벽기도회로 시작되었다. 올망졸망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성경학교로 모이는 모습 또한 귀한 것이었다. 주일에는 열두 명 모이던 것이 스물다섯 명으로 늘었다. 다시 한번 성경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양흠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진지함을 지나 영혼한 이슬과 같은 순백의 사랑과 포근함을 담고 있었다.

저녁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농어촌 전도를 다녀와서

“너 나 위해 땀
흘리지 못하느냐”

박정숙 집사(제15교구)

대원들은 짝을 지어 열거전 대로 다시 전도를 나갔다. 마을 사람들을 로시는 밭일과 농사일로 인하여 산디미같이 일을 앞에 놓고 부흥회 참석을 위한 시간을 대기란 고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대원들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했다.

셋째날 설레임과 아쉬운 마음으로 서리 마을 모든 주민들을

님의 말씀은 성전에 모인 무리들의 심령을 흔들어 사로잡는 하나님의 임계해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들은 서울을 향해 아쉬운 발걸음을 대대대했다. “살해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대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집에 끌려갈 자이다”라고 하실 주님의 칭찬을 감절히 사모하면서...

직원 모집

충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 봉사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종 : 관리직 남자 2명, 경리직 남자 1명, 여자 2명, 기술직 남자 2명(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설비 및 자동차 정비 1명), 경미직 2명, 영양사 1명(30~40세)

학력 : 고졸 이상
주소 :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충청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본, 당회장 추천서
제출기한 : 11월 9일
제출처 : 관리국 총무과(교육관 102호)